방글라데시 주요 경제동향(11월)

2020.12.6.(일), 주방글라데시대사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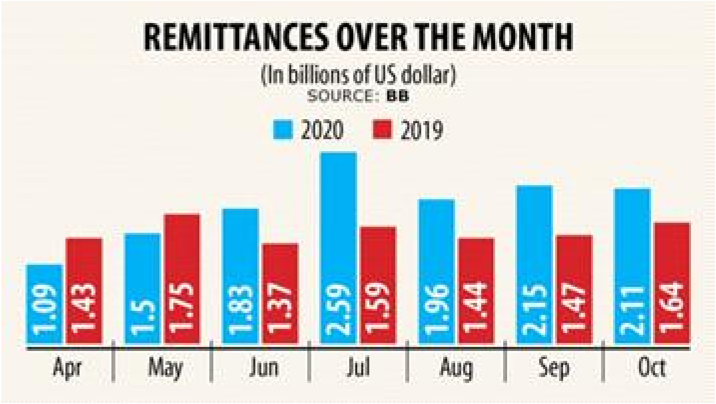
방글라데시 해외노동자 송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수출 증가, 인플레 둔화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, 2010-19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최대폭 감소한 반면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주목되고 있는 한편, 2024년 LDC 졸업 이후 특혜관세(GSP) 혜택 종료, RCEP 미가입에 따른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바, 최근 주재국 주요 경제동향을 아래 보고함.

1. 주요 경제 지표

가. 해외노동자 송금 지속 증가

○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신규 해외진출 둔화에도 불구 해외노동자의 송금은 11월 20.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4% 증가

- 10월 21.1억불, 9월 21.5억불에 이어 지속 월 20억불 이상 기록
- 금년도 총 송금액은 198억불로 지난해 183억불 대비 8.2% 증가



○ 송금 증가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에 따른 전통적 훈디 시스템 불작동, 선진국에서의 낮은 금리, 방글라데시에서 지속되는 홍수, 접수국 수요의

감소, 2% 캐시 인센티브 등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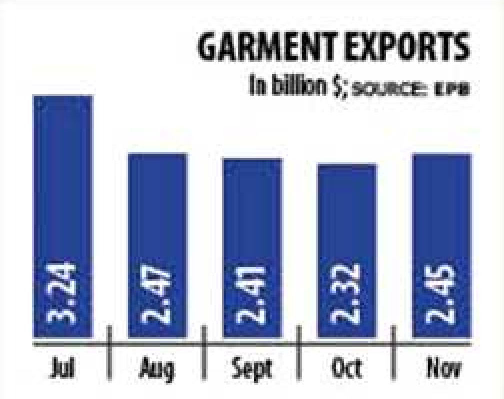
○ 매년 출국하는 방글라데시 해외노동자는 70-80만명이며, **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해외노동자 송금 수령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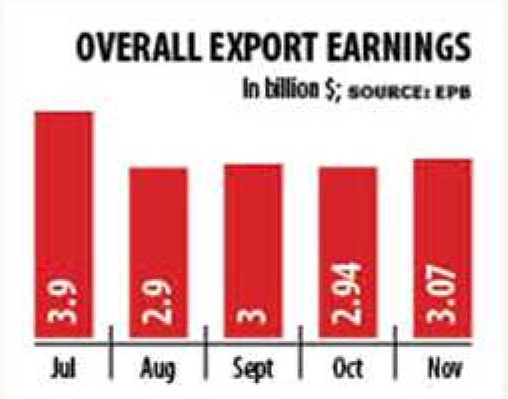
나. 수출 증가

○ 11월 수출은 30.7억불로 전년 대비 0.76% 증가(의류 수출은 24억불로 4% 감소)

- 7~11월간 수출은 159.2억불로 전년 대비 0.93% 증가

○ 전체 수출의 85%를 차지하는 <u>의류수출은 128.9억불로 전년 대비 1.48% 증가</u>





다. 인플레이션 둔화

○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.52% 상승, 10월 6.44% 보다 감소했으며, 최근 6개월간 최소폭 상승

- 최근 인플레이션은 주로 홍수와 강우로 인한 쌀과 채소류 가격 상승에 기인

라. 노동자 최저임금 최대폭 감소

○ ILO가 12.2 발표한 “Global Wage Report” 에 따르면 아태국가들 가운데 2010-2019

년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실질 최저임금은 각각 5.9% 및 4.5% 감소로, 가장 크게 감소

○ 방글라데시의 월 최저임금 중간값(median value)은 48불로 국제 빈곤 최저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, 아태국가들의 중간값은 381불로 호주가 최고 수준인 $2,166

- 베트남은 11.3%, 라오스 10.1%, 캄보디아 9.7%, 미얀마 1.6%, 인도 3.9%, 네팔 4.7%, 파키스탄 3.5% 증가

○ 통상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경우 중간임금의 55% 수준에서, 개도국의 경우 67% 수준에서 결정되나, 방글라데시는 16%선

- 방글라데시는 매 5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며, 최근은 2018.12월

○ 한편 동 기간중 방글라데시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5.8%로 중국(6.8%), 미얀마(5.9%)에 이어 3위

2. 경제협력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

가. GCF 2.56억불 수원

○ 방글라데시는 섬유, 의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적 기술 채택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GCF(Global Climate Fund)로부터 2.56억불을 지원받을 예정

- **의류 분야는 방글라데시 CO2 배출에 15.4%, 섬유분야는 12.4%**를 차지, 동 분야 에너지 효율성 증진이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 요소

-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차관 2.5억불, 관련 기술지원(grant) 6.5백만불을 받게 될 예정

- 2.5억불 가운데 1억불은 섬유분야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, 1.5억불은 4개 지방금융기관에 RMG 분야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

○ 동 기금을 받게 되는 IDCOL(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td)는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정부소유 비은행 금융기관

- 이는 GCF가 방글라데시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첫번째 양허성 차관으로 11.13 GCF 이사회에서 승인

나. LDC 졸업 관련 UNCDP에 최근 상황 보고서 제출

○ 방글라데시 정부는 LDC 졸업관련 GNI, 인적자산지수, 경제취약지수 등 3개 기준요

건에 관한 최근 상황 보고서를 유엔 개발정책위원회(CDP)에 제출

- **CDP는 2021.2.7~9 2차 심사**하게 되며, 여기서 통과될 경우 3년 후인 2024년 졸업 예정(2021년은 방글라데시 독립 50주년)

○ LDC 졸업을 위해서는 매 3년 개최되는 회의에서 3개 요건 가운데 2개 요건에 대해 2년 연속 기준점(threshold)을 초과해야 하며, 2018년 회의에 이어 3개 모두 충족

	Gross National Income	Human Assets Index	Economic Vulnerability Index	Year
Required	$ 1230 or above	66 or above	Below 32	
Bangladesh scored	**$1,272**	**72.8**	**25**	**2018**
	$1,640	**75.3**	**27.3**	**2020**

○ LDC 카테고리는 1971년 만들어졌을 당시 25개 국가였으나 2018년에는 47개 국가

- 방글라데시는 1975년 포함, 2015년 처음 threshold를 달성

○ EU는 방글라데시 LDC 졸업 이후 무관세, 무쿼터 무역혜택을 3년간(2027년까지) 부여 입장

- EU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시부터 EBA에 따라 무관세 부여

- 상무부는 10월 EU에 LDC 졸업 후 10년간 GSP 지속을 요청하는 서한 송부

○ <u>EU는 방글라데시 수출의 58%, 의류 수출의 64%</u> 차지 / 대EU 의류 수출은 340억불 규모

- EU 유예조치 없을시 8.7%의 관세 부담, 졸업 후 연간 수출 5.7%, 20억불 감소 예상

○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방글라데시는 약 70억불의 무역수입 감소가 예상되며, 2031년까지는 손실액이 1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

○ 한편, 방글라데시는 WTO LDC 그룹 등을 통해 LDC 졸업 후 10~12년의 무관세 유예기간 추진중

-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, 졸업 시기를 2026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

다. 방글라데시와 RCEP

○ RCEP 서명(11.15) 관련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전략적 검토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

- 1) RCEP 국가들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수출 비중은 10%에 불과, 2) LDC 국가로서 방글라데시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중국, 호주, 일본, 한국, 태국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이 80% 차지, 3) RCEP 국가들간 관세 완전 철폐시까지는 시간 소요 등으로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

- RCEP 가입시 LDC로서 특혜 주장 불가, RCEP이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, 노동, 환경 등 광범한 요소를 다루고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

ㅇ 한편, 1) 방글라데시의 LDC 졸업시 RCEP을 통해 역내 국가들간 교역에서의 혜택을 통해 특혜관세 졸업으로 인한 영향 해소 가능, 2) 이미 RCEP에 가입한 미얀마, 라오스, 캄보디아 등 여타 LDC 국가들이 LDC 졸업 후 역내에서 유리한 시장 접근, 3) RCEP가 투자와 공급망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있어 FDI 유치에 있어 RCEP 가입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등 측면 제기

- 특히 경쟁국인 베트남은 RCEP 뿐만 아니라 TPP에도 가입하고 있고, EU와 FTA도 체결중이며, 미국의 TPP 가입시에는 베트남과의 경쟁에 매우 불리한 상황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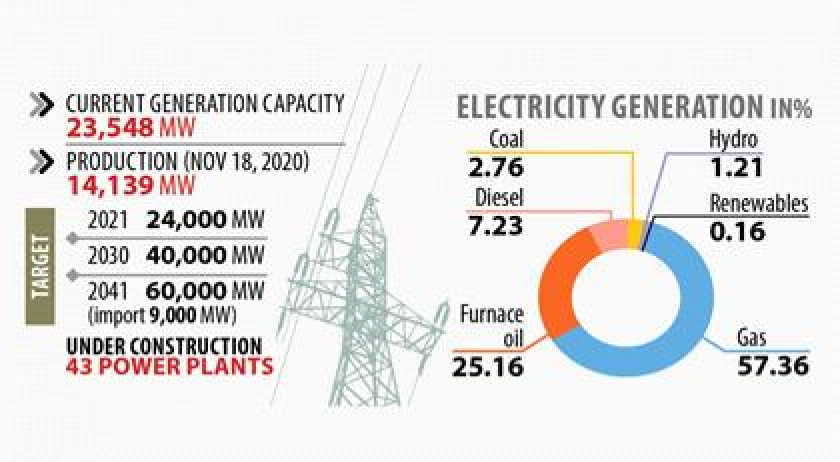
- 호주, 일본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뉴질랜드, 베트남 등 6개국은 TPP와 RCEP에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, 인도는 2019.11월 RCEP 탈퇴 결정

ㅇ 상기를 고려, 방글라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1) BIMSTEC 등 지역 경제협력체 효과적 활용, 2) 투자, 노동 기준, 지적재산권, e-commerce, ICT, 금융, 서비스 분야 등 개방 대비 제도적, 법적 준비 등 지적

3. 인프라 관련 동향

가.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축소

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8년 이후 18개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나, 13개 프로젝트는 자금미확보 등 진전 없는 상황



- 2030년까지 40,000MW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 가운데 35%는 석탄

- Payra(중국기업, 전기 생산 시작), Rampal(인도기업, 40% 진척), S Alam, Rarosa;, Matabari(콕스바자르, 일본 조인트벤처) 등 5개 프로젝트만 일정 진전

나. 경제특구(EZ) 이외 지역에 신규 가스라인 공급 중단 결정

ㅇ 방글라데시 에너지부가 2021.3월부터 경제특구(EZ) 이외 지역에 신규 가스라인 공급 중단을 결정, 논란이 있는 상황

- 2020.10.20자 에너지자원부 공고(circular): “In order to discourage services, including power and gas connection will have to be stopped in phases except for that inside the economic zones.”

다.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마련

ㅇ 방글라데시 도로부(RHD: Road and Highway Department)는 700억불 규모의 향후 15~20년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을 작성, 전국의 주요도로를 고속도로와 연결시킬 계획

- 3월 방글라데시 첫 고속도로인 Dhaka-Mawa-Bhanga 도로 개통 후 동 계획 작성

- 이외에 건설중인 고속도로는 Dhaka Bypass 고속도로

라. 방 총리실, 중국 자금지원 철도 프로젝트 비용 절감 요구(DT, 11.11)

ㅇ 방 총리실은 11월 중국 지원 Akhaura-Sylhet 및 Joydebpur-Ishwardi 철도 확장사업 비용 절감 요구

- Akhaura-Sylhet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20.8%에 해당하는 3,354억 Tk

- Joydebpur-Ishwardi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12.91% 해당하는 1,495.52억 Tk

4. 주요국 동향

가. 일본

ㅇ **세계적 일본 제약사 NIPRO Asia Pte 및 방글라데시 JMI Group**(1999년 이후 방글라데시 의료기기 및 의약 제조, 공급 선도업체)은 의약 및 의료기기 내수시장 공급 합작 결정

- 1.28억 Tk 규모 FDI로, NIPRO 지분은 70%이며, 이로서 NIPRO의 총 방글라데시 투자는 6.80억 Tk(8천만불)

- 이는 NIPRO JMI Co., NIPRO-JMI Pharma, NIPRO JMI Dialysis Centre, JMI

Syringes and Medical Devices에 이어 NIPRO-JMI간 5번째 합작

○ 일본 JETRO-치타공상공회의소(CCCI), 일방상공회의소(JBCCI)간 협력 MOU 체결 (11.22)

- 일본 기업 투자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CCCI내 일본데스크 설치 예정
- 방글라데시 진출 일본 기업은 315개, 7.3억불 투자
- 일본은 Narayanganji의 Araihazar에 일본 전용공단을 건설중이며, 2년내 완공되면 100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10억불 상당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- JETRO-FBCCI간은 2016년 협력협정 체결

○ 일본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

- 2014년 양국간 다카-치타공-콕스바자르 산업회랑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Big B Plan(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) 협력에 합의
- 일본은 마타바리 프로젝트, 치타공 심해항 건설 사업 등에 참여중
- 일본은 FOIP(Free and Open Indo-Pacific) 건설에 있어 방글라데시 중요성 강조

JAPAN-FUNDED MAJOR PROJECTS IN ROAD AND RAIL SECTORS

PROJECT NAME	WORKS	COST (IN TK CRORE)	DEADLINE
MRT-6	Metro rail (Uttara-Motijheel)	22,000	2024
MRT-1	Metro rail (Airport-Kamalapur via Natun Bazar-Purbachal)	52,562	2026
MRT-5	Metro rail (Hemayetpur-Bhatara)	41,238	2028
Cross-border Road Network Improvement Project	17 bridges and 11-km roads	3,684	2022
Western Bangladesh Bridge Improvement Project	81 bridges and 42-km roads	2,911	2022
Bangabandhu Sheikh Mujib Railway Bridge Project	Dedicated rail bridge over the Jamuna river	16,780	2025

나. 미국

○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20 회계연도 60.4억불 수출, 90%는 의류(수입은 25.8억불)

○ 미국은 2013.6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(GSP) 부여 중단

- 2013.4월 Rana Plaza 건물 붕괴 이후 열악한 노동권과 작업장 안전 사유
- 방글라데시 생산 의류는 15.62% 관세 부과, 중국(3%), 베트남 등 경쟁국에 불리한 상황

다. 영국

ㅇ 영국은 11.11 Brexit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에 대해 EU가 제공하는 무관세 제도를 유지할 방침임을 발표

ㅇ 영국은 미국, 독일에 이어 방글라데시의 3대 수출대상국(2019/20FY 35억불)으로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의 11.3% 차지. 끝.